

공간·지식·경험 나누며 새로운 패러다임 만든다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을 실험중인 '문화로 놀이짱' <사진 가운데>과 '서울청년일자리 허브'.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눔·교류·소통... 공유 경제, 문화 예술을 입다

5 국내 사례

'공유경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다. 베를린, 파리 등 해외의 경우 시행착오와 오랜 시간을 거쳐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결음마 단계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게 서울시의 행보다. 지난해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포한 서울시는 유휴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와 결합한 공유경제 모델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해외 선진 사례에 이어 국내 현장을 둘러봤다. 공간을 나누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현실화시키는 모습들이 모두 의욕적이다.

일자리 만들기·공간 대여 '청년일자리 허브'

복덕방·장터서 지역문화 배우는 'OO은 대학'

책 보관에서 대여까지 '국민도서관 책꽃이'

폐품 위기 가구의 재탄생 '문화로 놀이짱'

◇ 서울 청년일자리 허브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 허브(이하 허브)는 평강구 녹번동의 질병관리본부부 리모델링, 올 4월 문을 열었다. 이곳은 청년들이 함께 공간을 나눠쓰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곳으로 청년들의 일과 삶, 자활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허브를 방문한 날엔 비가 많이 쏟아졌지만 다양한 모임을 갖거나, 일을 하는 젊은이들로 붐볐다. 여기에 주부와 어린이 등 동네 지역 주민들까지 '제집'처럼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선 이곳에 들어서면 탁 트인 공간 활용이 눈에 띈다. 이용자들이 가져다 둔 책들을 모아놓은 '손때 묻은 책장', 다양한 모임이 진행되는 공동 부엌 형식의 '창문 카페', 누구나 편히 앉아서, 누워서 쉬 수 있는 공간 '휴' 등이다.

현재 허브에는 변형이 자유로운 '미닫이 사무실'을 지원받은 10개의 청년단체가 입주해 있다. 공모 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다. 에코 예술상품을 개발하고 청소년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나너울', 지역 커뮤니티 기반 패션 문화활동을 진행하는 '참새 의상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4개월 과정의 '청년학교',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을 청년 일자리 발굴과 연계한 '청년혁신활동', 문화예술 등 3명 이상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5개월 단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등이 허브의 주 프로그램이다.

허브의 기획 협력팀 서민정 팀장은 "이곳에 입주하는 청년단체들은 각자 프로젝트 진행과 함께 허브에 들어와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 OO은 대학

'누구나 가르치고, 어디서나 배우는 마을 배움터'.

'OO은 대학'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단체의 목표다. 그래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25년 경력 복덕방 사장님께 배우는 월셋방 컨설팅', '100년 막걸리 공장에서 배우는 발효부터 숙취해소까지', '구로 장어집 사장님의 장어처럼 유연해지는 톰바교실'이다. 남녀노소 상관 없이 동네 주민들 모두 'OO 대학' 교수가 된다. '교수' 위촉장을 받은 79세 강화도 할머니는 '하늘이 붓는 기분'이라며 행복해했다.

'OO은 대학'은 지난 2009년 '마포는 대학'을 시작으로 '구로는 예술대학', '강화는 대학', '관악시장은 대학' 등 지역에 뿌리를 둔 다양한 대학을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단체다.

'술래'라는 이름의 문화기획자들은 지역의 숨겨진 공간, 사람, 이야기들을 찾아내 지역 문화를 배워가며 마을 안에서 놀거리와 일거리를 찾는다.

그들에게는 장터, 놀이방, 복덕방, 텃밭, 극장 등 마을의 모든 장소가 문화 공간이다. 마을의 문제를 창의로 푸는 커뮤니티 '문화 공작소'가 그들의 지향점이다.

◇ 국민도서관 책꽃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국민도서관 책꽃이(www.bookoob.co.kr)는 오롯이 인터넷 서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대표 장웅씨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그는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닌,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들여다 봤다. 책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집에 쌓여가는 책을 놓아둘 '공간'이 문제다. 여기에 꼭 읽고 싶은 책이 '절판'일 경우에는 애가 탄다.

장씨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책을 자기 집이 아닌 제3의 공간 서가에 보존시키고, 모인 책들을 택배를 통해 이용하는 인터넷 도서관'이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책 2000권으로 지난 2011년 10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회원은 4500명을 웃돌고 보유한 책은 2만권을 넘는다. 웬만한 서울시 구립도서관 수준이다. 보유한 책이 늘면서 최근에는 경기도 일산에 새 공간도 마련했다.

이용하는 법은 간단하다. 회원으로 가입해 책을 맡기고 빌리면 된다. 이용자가 자기 책을 맡기는 '키움'은 무한대로 가능(원하면 언제든지 되갚아줄 수도 있다)하며 최대 25권까지 빌릴 수 있다. 대여 기간은 최장 2달까지 가능하며 권수에 따라 택배비를 내면 된다. 국민도서관 책꽃이는 8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회원제(월3000원)로 운영하고 있다.

"자기 삶의 흔적이 담긴 책을 버리는 건 힘든 일이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공간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어떤 회원이 집에 공간이 부족해 맡겨 둔 책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절실한' 책일 수도 있다."

장웅 대표는 "책의 회수율은 거의 100%"라며 "개인의 취향이 모여 단순한 대여소가 아닌 특별한 도서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문화로 놀이짱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유휴 공간에 터 잡은 '문화로 놀이짱'의 첫인상은 "참 알뜰하게도 공간을 사용한다"는 거였다.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낡은 건물을 직원들이 일일이 수리하고 낡은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 공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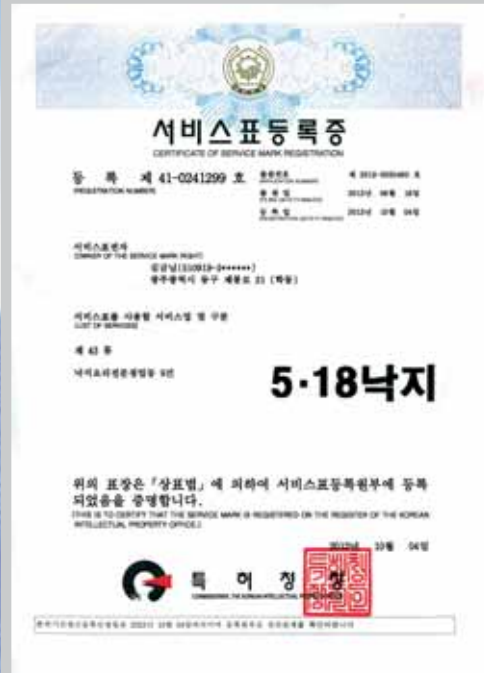
'문화로 놀이짱'은 오래된 가구 등 버려지는 목재들로 생산과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디자이너들의 공동체다.

'별랑에너지발전소'는 마을 작업장으로 버려진 가구와 물건들에 쓸모있는 에너지를 더하는 제작소다. 재활용 가능한 목재들의 창의적 활용방안을 궁리하는 '재료들의 도서관',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의 도서관', 책과 자료가 모여있는 커뮤니티 공간 '메뉴얼 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로 놀이짱이 진행하는 '해결사들의 수리병원'은 가구나 생활용품들을 수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달 한차례씩 마포구청 앞에서 종합의학과(수리), 재활의학과(새로운 기능 찾기), 수리약국(부품판매) 등 재미있는 이름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체인점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

상표등록 : 41-0241299호

